



□ 전문인이 자기 분야에 대한 대중서를 쓴다는 것은, 이른바 구애求愛 행위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같이 좀 좋아하고 사랑해 달라는, 안타까운 몸짓이다.

▣ 내가 이런 몸짓을 해온 지도 12년째. 1991년에 《서울性》이라는 책(부제: 도시문화 시대의 서울을 기리는 책)을 내고 전문서, 대중서를 오가며 1년에 한 권씩은 책을 썼다. 무슨 효과가 있긴 했을까? 가끔은 자문해 본다. 마음이 간절해서, 실무 스트레스를 덜어내려는 방편으로, 물론 글쓰기를 통해서 나 자신이 더 자라고 싶어서 책을 썼지만, 뭔가 효과가 있긴 있었을까?

↳, 우리의 도시와 건축에 대해서는 나는 애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좋아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무척 나빠지기도 한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안목 높은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완성도 높은 건축물들이 늘고 있다. 꼭 그럴듯한 잡지를 뒤적이지 않더라도 여기저기 근사한 건물들이 들어선다. 다른 한편, 우리가 모여 사는 도시라는 환경이 좋아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영 의문이다. 물론 공원도 늘고 문화보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 싶은 도시'가 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 씩씩한 현상들은 많다. 고급화 취향이 상업주의적 고급화, 획일화된 상품화, 외국풍 유행으로 쏠리는 현상, 대형화하는 프로젝트들이 지나치게 소비지향적이 되는 현상, '사업'이 아닌 건축이나 도시란 없다는 기본명제를 지키면서도 격조 있게 만드는 공간어휘가 딸리는 한계, 건축은 인테리어화하는 반면 도시와의

## 구애하는 건축, 열애하는 도시

김진애\_건축가·(주)서울포럼 대표

관계는 적대적인 건축물이 느는 현상 등. 도시가 삭막하기에 내향적 건축 성향이 심해지고, 자본경쟁이 치열하기에 유행적 소비가 심해지고, 상업 서비스에 사람들이 중독되는 현상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애석하기는 애석하다.

┌ 거대한 수레바퀴 같은 현상이다. 나의 설계작업이나 글쓰기 작업으로 이 거대한 수레바퀴를 멈춘다는 것? 불가능하다. 다만, 나는 진자의 진동을 믿는 편이다. 거대한 수레바퀴의 역학이 바뀌는 시점이 '어느덧' '드디어'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작업을 계속할 힘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 그래서 다음 생각들을 나 자신에게 되묻고 되묻는다.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이 있다/단한 건축이 아니라 열린 건축이 되어야 한다/걷고 싶은 도시, 거닐고 싶은 건축이 가장 좋다/눈으로만 보는 시각적 도시건축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도시건축이 되면 좋다/특히 촉각으로 느껴지는, 즉 만지고 싶고 기대고 싶고 걸터앉고 싶은 도시건축이 좋다/건축은 사람과 사람의 보이지 않는 끈을 만들어주는 매체다/도시는 인간이 모여 즐기는 거대한 사교장이다/도시건축이 자연에 짓는 원죄를 없앨 수는 없지만 자연을 축복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등.

┐ 책 쓰는 작업에 어떻게 나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구애하는 입장에서 이념이나 철학을 일방적으로 펼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대중을 위한 전문 책을 쓸 때 나는 전문훈련을 쌓기 전 갖은 의문과 호기심으로 충만했던 그때 그 심성으로 돌아가서 글을 쓰려 노력한다. 소위 전문가의 레디메이드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려 애쓰기도 한다. 독자가 상상하고 자신의 느낌으로 직접 자신의 의문과 해법을 찾아야 사랑이 맺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기 때문이다.

┌ 이런 글쓰기가 참 쉽지 않음을 새록새록 느끼고 있다. 건축 팬을 위해 쓴 다음 세 권의 책 작업은 각별히 더 힘이 들었다. 그

러나 나름대로 보람도 있다.

┐ 《이 집은 누구인가》(한길사, 2000)에 대한 독자 멘트들. '살던 옛집들을 찾아보러 다녔다. 하루 종일 똥똥 떠다녔다. 아파트에 문 하나를 만들었을 뿐인데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 성성에 대해 상상력이 커졌다, 한옥을 고쳐 사는데 좋았다...' 등.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독자가 바라게끔, 궁리하게끔 하려는 나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한 상이다.

┐ 《김진애의 우리도시 예찬》(안그라픽스, 2003)을 막 내놨다. 동네라는 눈을 통해 우리 도시를 들여다보는 책이다. 서구도시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도시를 즐길 줄 아는 진짜 도시인이 되어 보자는 메시지가 얼마나 독자에게 가깝게 갈 수 있을까? 아무래도 '도시' 나 '동네' 란 '집' 보다는 멀게 느껴질 텐데,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을까?

┌ 공간 디자인 분야의 후배들을 위해 쓴 《매일매일 자라기》(서울포럼, 1997)라는 책은 일종의 입문서가 되었는데,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도 가끔씩 이 책을 다시 읽는다. '체험하며 자라기, 느끼며 자라기, 만들어보며 자라기, 기록하며 자라기, 상상하며 자라기', 죽을 때까지 할 일이다. 나는 지금도 매일매일 자라고 싶다. 또 자라고 있다.

┌ 최근 들어 창작서뿐 아니라 번역서도 많이 는 편이지만 도시와 건축에 대한 책은 아직 우리 사회에 일천하다.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적은 탓이고, 부동산적 가치 또는 허영과 사치의 가치가 우세한 탓이겠다. 그러나 대중과 사회를 타할 수만은 없다. 부지런히 구애의 몸짓을 해야 할 사람은 역시 전문인이다.

┐ 나는 앞으로도 건축 팬을 위해서 쉽고 즐거워지는 책, 독자들이 나만큼이나 건축과 도시와 사랑에 빠지게 할 책을 쓰려 애쓸 것이다. 주제와 소재는 무궁무진하다. 다만, 감동을 전하기란, 상상을 나누기란, 사랑을 같이 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

┐ 이 글을 쓴 김진애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 MIT 대학에서 환경설계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포럼 대표로 있으며 '선농테라스' '산본 신도시' '인사동길' 등의 설계작업을 주도했다. 그동안 펴낸 책으로는 《이 집은 누구인가》 《매일매일 자라기》 《김진애의 우리도시 예찬》 《건축@프론트라인》 《남자 당신은 흥미롭다》 《메타우먼》 등이 있다.